

혁신적인 제도 시행 · 조합원 생활 편의 제공 '결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지난 8일 전북농협 정례대회에서 창립 62주년 기념 통산 3선 공로상 및 농협생명 Pre-연도대상 캠페인 위너스 CEO상을 수상했다.

〈본보 9월 11일자 8면〉



임인규 조합장은 2015년부터 지난 8년간 조합장을 연임하면서 혁신적이며 농협을 선도하는 전국 최초 농사연금지급, 농민훈장제도 등을 시행해 농민 조합원들의 영농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애국자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전북 최초 상호금융 사업량 3조원을 달성하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고, 농산물유통센터 증설, 농자재센터 개설 등으로 경제사업 1,200여 시대를 열었으며, 주유소도 2개점을 개설해 조합원과 일반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전북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했고, 농업 및 농협 발전에 기여한 조합장으로서 농협 창립 62주년 기념 통산 3선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농협생명 Pre-연도대상 캠페인 위너스CEO 부문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Pre-연도대상은 상반기 생명보험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위너스 CEO 부문에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8년간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고 이런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 앞으로 4년 동안도 전주농협 경영을 믿고 맡겨 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민이 애국자'라는 슬로건 아래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전주농협이 되겠다"며, Pre-연도대상은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익을 위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지난 8일 전북농협 정례대회에서 창립 62주년 기념 통산 3선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 농사연금지급 · 농민훈장제 시행 상호금융 사업량 3조원 달성 등 큰 성장 이뤄

“농민이 애국자라는 슬로건 아래 초심 잃지 않고 조합원들과 지역사회 보탬 되는 농협 될 것”



신지식인 인증서 수여



농민훈장 수여식



리브 커머스 방송



신지식인 인증서 수여



전주매일 캠페인